

# 미얀마의 농업현황과 정책 \*

안 선 하  
(서울연구원 글로벌미래연구센터 연구원)

## 1. 미얀마 일반 연왕

### 1.1. 개요<sup>1)</sup>

미얀마의 정식 명칭은 미얀마 연방 공화국(구(舊) 버마 (Burma),<sup>2)</sup> The Republic of the Union of Myanmar)으로, 위치는 인도차이나 반도 서북부에 있으며, 동쪽에 태국과 라오스, 서쪽에 인도 및 방글라데시 그리고 북쪽에 중국 윈난성과 접해있다. 미얀마의 면적은 한반도의 약 3.5배, 남한의 약 6배인 67만 7,000km<sup>2</sup>이며, 해안선의 길이가 1,930km에 달한다. 미얀마의 총 인구는 5,148만 명<sup>3)</sup>이며, 행정 수도는 네피도(Nay Pyi Taw)이고, 행정구역은 총 14개 (7개 주(State), 관할 구역(Districts))은 7개로 구성되어 있다. 미얀마의 주요 도시는 양곤(Yangon), 만달레이(Mandalay), 빠떼인(Pathein) 등이 있다.<sup>4)</sup>

\* (ssunha@si.re.kr).

1)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2016. 「국가정보 - 미얀마」 양곤사무소.

2) 1948년 영국으로부터 독립 후, 국호를 버마 연방이라 명했고, 1989년 군부에 의해 버마에서 미얀마 연방(Union of Myanmar)으로 국명을 변경 후, 2010년 지금의 미얀마연방공화국(The Republic of The Union of Myanmar)으로 다시 개칭됨.

3) 2015년 5월 정부 발표에 따름.

4) 네피도는 행정부가 2005년 11월에 새롭게 이전한 행정수도 이고, 양곤은 미얀마의 현 경제 중심지로서 교역의 80%를 수행하고 있음. 또한 만달레이는 영국 식민 통치 전의 마지막 수도였으며, 중북부 경제, 종교적 중심지이고, 빠떼인은 양곤의 서쪽에 위치한 항구도시로 쌀과 수산물 생산의 중심지임.

미얀마는 지리적으로 근접한 인도와 중국의 종교·문화적 영향을 받아왔으며, 역사적으로 1287년 원나라(몽고족)에 의해 1044년에 바간(Bagan)<sup>5)</sup>을 중심으로 건국된 제1의 통일 왕국이 멸망했었고, 이후 300년 동안 혼란기를 거쳐 제2의 통일왕국<sup>6)</sup>을 건국하게 되는데, 이 때 수도를 양곤 인근의 바고 지역으로 옮겨 국력을 배양하는 동시에 1564년과 1569년 두 차례에 걸쳐 태국을 침공하여 점령 및 약탈하기도 했다. 이는 태국과 미얀마가 오늘날까지도 서로를 경계하는 역사적 배경이기도 하다. 또한 미얀마는 1824년, 1852년, 1885년 세 차례의 영국과의 전쟁을 치루고, 그 이후 영국의 식민지가 되어, 인도의 한 주로 편입되었다. 이때부터 미얀마는 영국의 아시아 식민지 경영의 거점이 되었다. 특히 영국은 인도에 대한 식량 공급지로서 미얀마를 활용했는데, 남부의 에아워디(Ayeyarwady) 삼각주 지대에 벼농사를 개발하여, 1930년대 미얀마를 세계 제1의 쌀 수출국으로 만들었다. 1948년 1월 4일 미얀마는 영국으로부터 독립하였으나, 1962년 3월 네 윈 육군총사령관의 쿠데타로 첫 군사정권이 시작되었고 2011년 테인세인 대통령 취임 후, 군부가 '민간정부'로 권력을 이양하기 전까지 미얀마는 약 50년 간 군부통치 하에 있었다.

## 1.2. 자연 환경

미얀마의 기후는 연평균 기온 약 27.1°C의 열대성 몬순 기후이나, 고도가 높은 지역은 온대성 기후를 나타내기도 한다. 계절은 무더운 건기가 2월 말부터 5월 중순까지, 우기는 5월 하순부터 10월 말까지, 서늘한 건기는 10월 중순부터 2월 중순까지이다. 미얀마의 연간 강수량은 지역에 따라 차이를 보이며 728~5,825mm의 범위에 있고, 해안과 산간지역은 1,045~5,825mm, 중북부 지역은 728~849mm 수준이며, 아래 <그림 1>은 미얀마의 최근 3년간 연간 강수량을 나타낸 것으로 건기와 우기가 뚜렷하게 구분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처럼 미얀마의 열대기후와 풍부한 강수량 및 수자원<sup>7)</sup> 그리고 비옥한 토양은 최적의 농업환경을 제공하며, 또한 약 2,000km에 달하는 해안선을 바탕으로 풍부한 수산자원도 보장된다. 미얀마 주요 자원으로는 쌀·티크(Teak)<sup>8)</sup>·목재<sup>8)</sup> 이외 원유·주석·연·아연·동·석탄 등이 있다.

5) 오늘날 바간(Bagan)에는 캄보디아의 앙코르와트에 버금가는 대규모 불교유적이 남아있으며, 이는 유네스코(UNESCO) 세계문화유산에 지정되어 미얀마의 최대 관광 상품이 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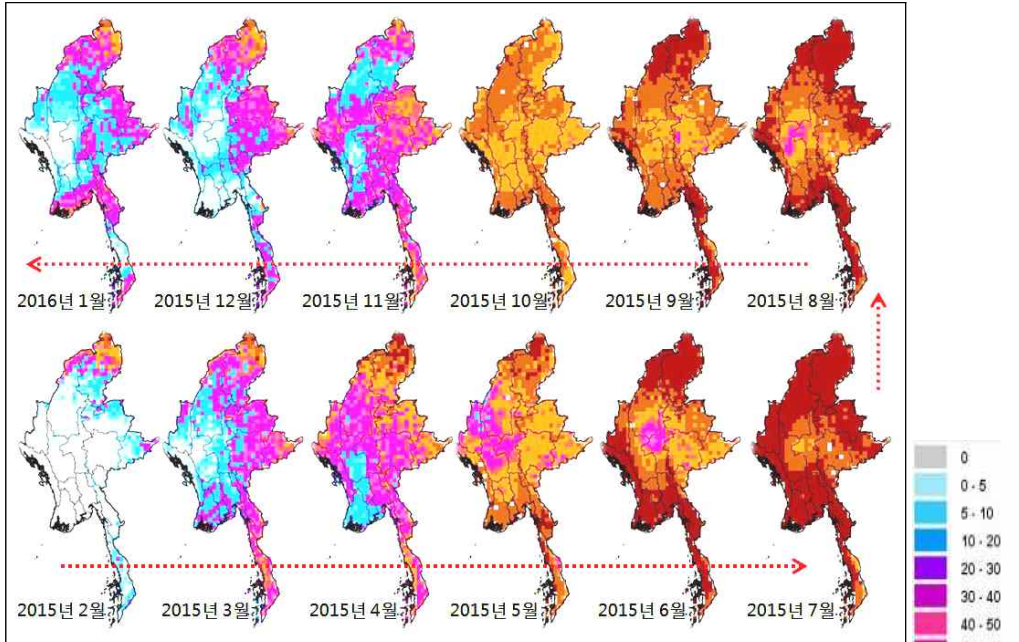
6) 따웅우(Taung Oo)왕조(1280~1752년).

7) 미얀마는 에아워디강(Ayeyarwady), 친다윈강(Chindwin), 탄윈강(Thanwin), 시타웅강(Sittaung)과 같은 4대 강을 포함한 주요 8개강이 있으며, 지표수는 8,280억 톤, 지하수 4,950억 톤 등 총 13,230억 톤의 세계에서 2번째로 많은 수자원을 보유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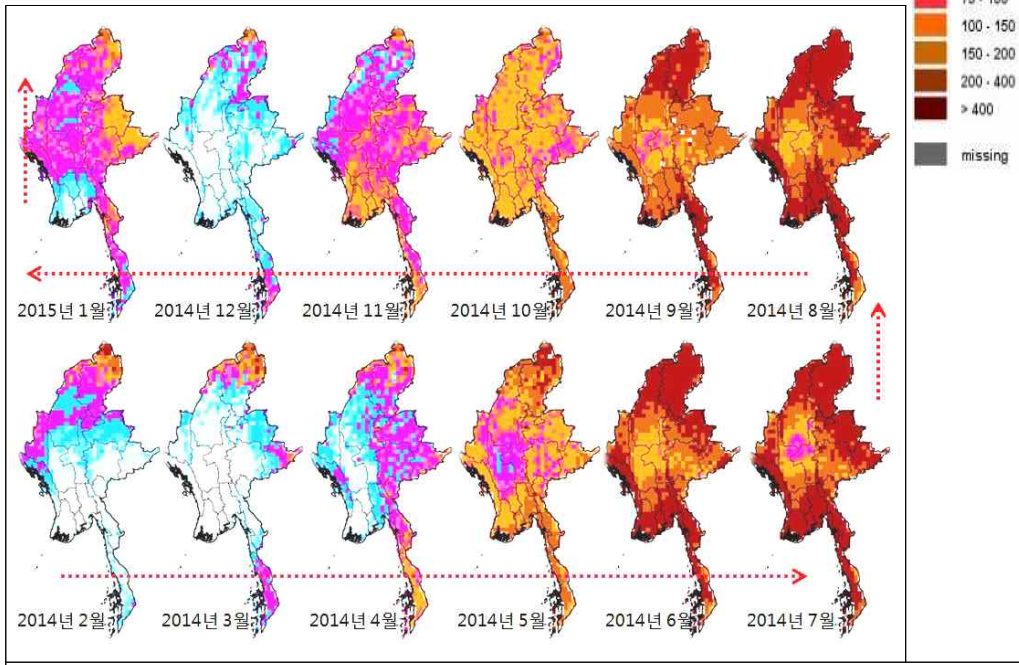
8) 미얀마는 전 국토의 47%가 산림으로 이뤄져 있으며, 세계적으로 재질이 단단한 티크원목의 75%정도를 보유하고 있음.

그림 1 미안마의 최근 3년간 강수량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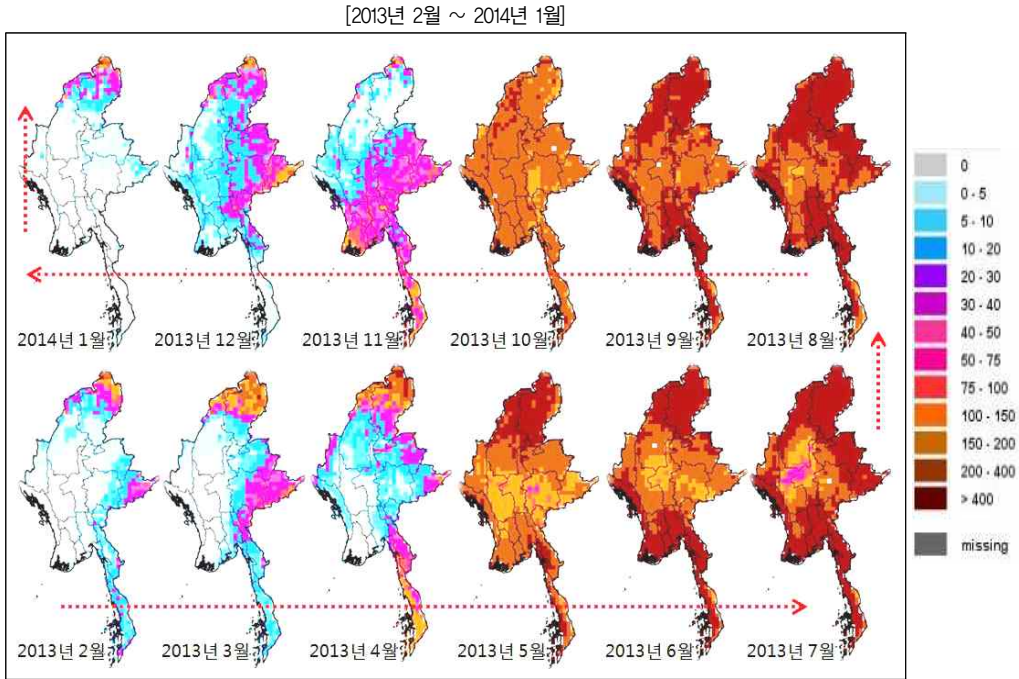
[2015년 2월 ~ 2016년 1월]



[2014년 2월 ~ 2015년 1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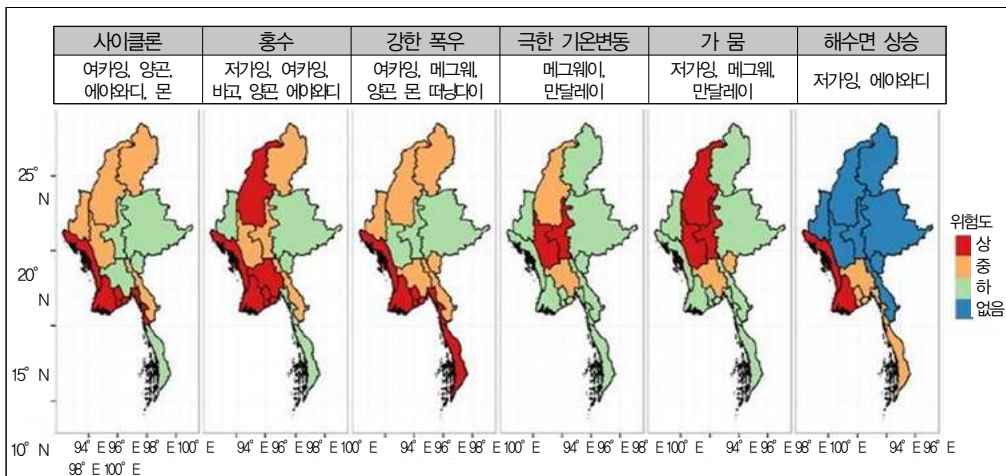


(계속)



자료: FAO (<http://www.fao.org/giews/earthobservation/country/index.jsp?type=31&code=MMR>).

그림 2 미얀마의 기후변화에 취약한 주요 지역



자료: ADB(2015)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가 재구성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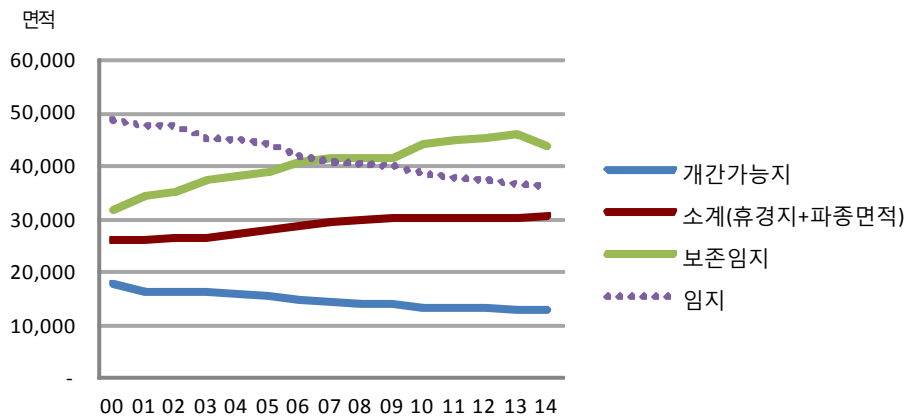
미얀마의 주요 쌀 생산지역으로는 해안지역의 여카잉(Rakhaing), 에야와디(Ayeyarwady), 양곤 (Yangon), 바고(Bago), 저가잉(Sagang), 산(Shan) 지역이 있는데, <그림 2>에서 보면,

사이클론과 홍수 그리고 강한 폭우에 대한 위험도가 높은 지역(붉은 색으로 표시된) 또한 미얀마의 주요 쌀 생산 지역과 일치하는 부분을 존재한다는 걸 알 수 있다. 특히, 미얀마의 여카잉(Rakhaing)과 에야워디(Ayeyarwady) 지역이 쌀 생산량이 높은 지역이기

표 1 미얀마의 연도별 국토 이용 형태 변화

단위: 에이커(acre)

연도	경지			개간 가능지	보존 임지	임지	기타	총면적
	현)휴경지	파종 면적	소계					
2000	1,695	24,486	26,181	17,804	31,910	48,892	42,399	167,186
2001	1,536	24,685	26,221	16,466	34,533	47,758	42,208	167,186
2002	1,442	24,921	26,363	16,114	35,023	47,537	42,149	167,186
2003	1,278	25,337	26,615	16,245	37,397	45,250	41,679	167,186
2004	1,086	25,984	27,070	15,855	38,009	44,808	41,444	167,186
2005	910	26,989	27,899	15,516	38,813	44,055	40,903	167,186
2006	736	28,118	28,854	14,758	40,678	41,969	40,927	167,186
2007	653	28,930	29,583	14,304	41,404	40,891	41,004	167,186
2008	634	29,351	29,985	14,011	41,604	40,570	41,016	167,186
2009	597	29,591	30,188	13,861	41,752	40,166	41,219	167,186
2010	569	29,703	30,272	13,333	44,271	38,621	40,689	167,186
2011	795	29,454	30,249	13,279	45,058	37,926	40,674	167,186
2012	1,086	29,258	30,344	13,246	45,232	37,577	40,787	167,186
2013	1,128	29,092	30,220	13,078	46,203	36,672	41,013	167,186
2014	1,094	29,617	30,711	13,014	43,871	36,409	43,181	167,186



자료: FAO(2015), CSO(2015).

9) 미얀마의 행정지역 명칭은 <그림 3>을 참고



도 하고, 이상기후 변화 위험도 높은 곳이어서 미얀마의 연간 곡물 생산량 및 해당 곡물의 가격변동성이 커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미얀마의 총 토지 면적은 16만 7,186에이커이며, 토지 이용 구성은 경작이 가능한 땅이 약 26%<sup>10)</sup>이고, 임지(보존임지 포함)가 48%, 기타 이용의 땅이 25.8%를 차지한다. 연도별 토지이용 변화 추세를 보면, 경지<sup>11)</sup>가 점진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반면 임지는 다소 축소되고 양상을 보인다<표 1 참조>.

과거부터 미얀마 경제의 근간이었던 벼는 전체 경지의 39%를 차지하고 있고, 미얀마는 일반적으로 동일한 토지를 여러 번 사용하는 다모작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미얀마 토지에는 65개 이상의 다양한 품종들이 재배되고 있다.

### 1.3. 인구 구성

2014년 실시된 미얀마의 총인구조사 결과, 미얀마의 총 인구는 약 5,148만 명이었다. 이는 ASEAN 회원국 중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태국에 이어 5위를 차지하며, 전

그림 3 미얀마의 지역별 인구밀도

단위: 명/km<sup>2</sup>



자료: UNFPA의 2014년 미얀마 총인구조사 보고서에 있는 그림을 저자가 재작성함.

10) 2014년 기준 파종면적과 휴경지 포함 면적이 18.4%이고, 개간 가능한 땅이 7.8%의 비중으로 두 수치를 합한 값임.

11) 표 1의 아래 그래프 상 휴경지와 파종면적을 합한 소계를 나타냄.

---

세계에서는 24위의 인구 규모를 가지고 있는 셈이다. 미얀마의 주요 민족구성은 버마족이 약 68%를 차지하고, 산족(Shan) 9%, 까렌족(Karen) 7%, 여카잉족(Rakhine) 4%, 까친족(Kacerehin), 몬족(Mon), 친족(Chin) 각각 2%, 기타가(중국계, 인도계) 4% 등이며, 소수민족은 약 135개의 종족으로 구성되어 있다. 미얀마의 공용어는 버마어이며, 소수민족들은 고유어를 사용한다. 종교는 불교가 89%를 차지하고, 다음으로 기독교 5.6% 이슬람교 3.8%, 힌두교 0.5%, 토속신앙 0.2%, 기타 0.6% 순으로 구성된다. <그림 3>은 미얀마의 각 행정 구역별로 인구밀도가 가장 높은 주를 나타내며 양곤(Yangon), 만달레이(Mandalay), 몬(Mon), 네피도(Nay Pyi Taw), 바고(Bago) 그 순이다.

#### 1.4. 정치 연왕<sup>12)</sup>

미얀마의 정치현황은 역사적 배경에 대한 이해를 요한다. 그 흐름은 다음과 같다. 미얀마는 1945년 2차 대전 이후, 아웅산 수지(Aung San Suu Kyi) 여사의 아버지인 아웅산(Aung San) 장군을 중심으로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쟁취했다. 그러나 2년 뒤 1947년 7월에 독립영웅 아웅산 장군이 암살되면서, 미얀마의 정국은 혼란의 시기를 맞이하게 된다. 1948년 미얀마는 최초로 대통령 중심제를 바탕으로 민간 정부가 수립되었지만, 독립운동 당시 형성된 군부세력들이 통치 엘리트 세력으로 등장하며, 1962년 3월 군부세력의 수장인 육군 총사령관인 네윈(Ne Win) 장군의 쿠데타로 미얀마는 장기간 군부통치 하에 놓이게 된다.

당시 전 세계는 냉전시대의 이념 분쟁 하에서 있었고, 네윈 장군은 사회주의와 불교사상을 결합한 ‘버마식 사회주의(Burmese way to Socialism)’를 경제체제 이념으로 도입하게 된다. 버마식 사회주의의 주요 특징은 국내적으로 사유재산제도의 폐지, 토지 및 민간기업의 국유화를 포함한 계획경제 도입이 주를 이루며, 대외적으로 고립적 폐쇄 경제체제를 바탕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1963년 군사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농가의 자가소비분을 제외한 42개 농작물의 수매, 저장, 판매, 도정, 배분, 수출에 관한 모든 권한을 정부기업 하에 통제됨에 따라 미얀마의 시장 기능은 사실상 정지된 상태나 마찬가지였다. 한편, 이러한 군사 정부의 만행에 불만이 커진 미얀마 국민들(주로 대학생들)은 아웅산 수지 여사를 주축으로 1988년 ‘양곤의 봄 (또는, 8888운동)’이라는 반정부 민주화 시위를 주도하여 수장인 네윈의 퇴진을 이끌었다. 그러나 같은 해 군부의 새로운 세력 판쉐(Than Shue) 장군의 지휘 하에 군의 쿠데타가 또다시 발발되었고, 그

---

12) 본장은 KOTRA의 미얀마 국가정보를 바탕으로 저자가 재작성하였음.

결과 미얀마의 정치에는 새로운 세력 ‘신군부’가 등장하게 된다. 신군부는 네윈 정권의 폐쇄적인 경제정책과는 달리 대외교역 및 투자활성화를 국가의 주요 목표로 설정하였다. 그 예가 1988년 외국인투자법의 최초 도입이다. 이는 정부의 외국인자본을 통해 광산자원개발을 촉진하여 외화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 작용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또한 네윈 치하의 반란을 반면교사로 삼아, 농민들에게 주요 식량인 쌀과 식용유를 제공함으로써 정세 안정화를 꾀하였다. 반면, 그 이면에는 민주세력들을 탄압하고, 국민들의 선거결과에 불복했으며, 아웅산 수지여사를 장기적으로 가택연금 시키는 등의 정치 퇴행적 모습이 상존하기도 했다. 미얀마의 이러한 정치적 비자율성은 대외관계 악화를 장기적으로 지연시켰고, 이는 미얀마 경제발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미얀마의 대외적 관계가 본격적으로 개선된 시점은 2011년 3월 30일, 군정통치기구인 국가평화발전위원회(State Peace and Development Council, SPDC)가 테인세인 대통령의 신정부에게 모든 권한을 이양하고 해체한 시점이자, 이듬 해 2012년 4월 보권선거를 통해 아웅산 수지 여사가 국회에 입성하고, 같은 해 11월 오바마 대통령이 미얀마에 방문하여 미얀마에 대한 미국의 제재완화를 발표한 시점이라 할 수 있다.

2015년 11월 8일 미얀마는 전국적으로 총선이 개최됐고 그 결과, ‘민주화 중심의 경제 발전’을 슬로건으로 내세운 아웅산 수지 여사의 민주주의 민족동맹당(National League for Democracy, NLD)이 선출직 491석 중 390석(상원 135석, 하원 255석) 전체 의석의 59% 차지하며 역사상 최초로 집권여당이 되었다.<sup>13)</sup> 그러나 NLD의 집권을 우려하는 외부의 시선들이 다소 존재한다. 그 이유는 NLD의 집권이 미얀마의 민주주의 발전에 중요한 시금석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으나, 지난 50여 년 동안 집권당의 위치에 있었던 군부와의 관계 개선<sup>14)</sup>이 되어야 내부 정세 안정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고, 수십 년 동안 통치 경험이 없던 NLD가 집권여당이 됨에 따라 행정적 집행 능력의 비효율성이 제기될 수 있다는 우려, 그리고 오랫동안 문제시 되어온 소수민족과의 갈등 문제<sup>15)</sup> 등 앞으로 집권여당으로써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재되어있기 때문이다.

2016년 2월 1일 미얀마 국회에서는 새로운 여당이 개최하고,<sup>16)</sup> 3월 15일 국회에서 떤 쟈(Htin Kyaw)대통령이 미얀마의 9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어, 52년 만에 새로운 문민 정부 내각이 구성되었다.

13) 전 집권당이었던 통합단결발전당(Union Solidarity and Development Party, USDP)은 491석 중 41석(상원 11석, 하원 30석)을 획득함


14) 아웅산 수지가 집권하더라도 전 의석 중 25%(166석)를 차지하고 있는 군부와의 관계를 원활히 조정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존재함

15) 버마 민족주의자들이 주축인 NLD가 135개의 소수민족들을 포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도 존재함.

16) 국회 상원의장으로는 NLD당의 만윈카인뎨(U Mann Win Khine Than), 상원 부의장으로는 USDP당의 티콘마트(U T. Khon Myat), 국회 하원의장으로는 NLD당의 윈 민트(U Win Myint), 하원 부의장으로는 ANP당의 에따이웅(U Aye Thar Aung)이 선출됨(KOTRA 미얀마 국가자료).



표 2 일반 개황

구분	항목(단위)	내용
일반	지도 및 국기	
	위치	아시아 인도차이나반도 서북부 동부 태국 및 라오스, 북부 중국, 서부 인도 방글라데시와 접경
	면적	면적 676,563 km <sup>2</sup> , 해안선
	기후	열대성 몬순기후(연평균 기온 27.08° C, 연평균 강우량 2,513mm)
	인구	5,148만 명(2015년 5월 정부 발표)
	행정 구역	14개 행정구역 7개 State과 7개 District로 구성
	수도	네피도(행정수도), 양곤(경제중심지)
	민족	버마족(68%), 산족(9%), 카렌족(7%), 라카인족(4%), 소수민족(카친, 몬, 친족) 135종족(7%), 기타(중국계(3%), 인도계(2%))
	언어	미얀마어, 소수민족어 (정부, 기업인, 호텔종사자들은 영어 구사 가능)
	종교	불교(89.3%), 기독교(5.6%), 이슬람교(3.8%), 힌두교(0.5%), 토속신앙(0.2%), 기타(0.6%)
정치	건국(독립)일	1948년 1월 4일 (영국으로부터 독립)
	정치 체제	대통령 중심제(임기 6년)
	국가 원수	테인세인(6년) → 2015년 3월 선출예정
	의회	양원제: 상원(224석), 하원(440석)
	주요 정당	통합발전단결당(USDP), 민주주의민족동맹(NLD) 외 91개 정당 존재
	국제기구 가입	UN, IMF, IBRD, ADB, ASEAN, WTO 등
경제	명목 GDP	657억 7500만 (IMF, 2015년 추정치)
	실질경제성장률	8.5 % (IMF, 2015년 추정치)
	1인당 GNI	1,270 달러(US\$ (WB, 2014년))
	화폐 단위, 환율	Myanmar Kyat(Ki: 짜트, 또는 쟈), 1 달러(US\$)= 1,233.68 짜트(2016년 2월 25일 기준)
	외채 외환보유고	US\$ 76억 9,700만, US\$ 94억 1,700만 (각각 2015년 말 추정치)
	산업 구조	농업(36.1), 산업(22.3), 서비스(41.6) CIA(정보확인날짜: 2016년 2월 25일)
	인구증가율	0.9%
	빈곤율	25.6% (아세안 10개 국 중 1위, 필리핀(25.2%), 라오스(23.2%), 캄보디아(18.9%))
	주요 수출품	천연가스, 옥, 의류, 쌀, 검은콩, 광물, 수산물 및 관련품
주요 수입품	기계 및 운송장비, 정유, 비철금속 및 제철제품, 전자제품 및 부품류	

자료: WDI, ADB, CIA, Exchange-Rates.org (정보확인날짜: 2016년 2월 25일).

## 2. 미얀마 사외·경계 및 농촌 연왕

### 2.1. 미얀마 사외·경계 연왕

미얀마 경제정책의 기본 방향은 대내적으로 국민 참여 확대 및 복지향상을 위한 ‘친서민적’ 정책을 지향, 국민 참여를 통한 예산 결정방식을 따르며 이를 통해 개방적인 공공 재정 관리 시스템 도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정부는 이에 대한 맥락으로 국민 생활과 밀접한 연관 있는 산업(예: 농업, 축산업, 어업 등)에 국내외 기업들과의 기술 향상을 위한 합작 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노동자를 위한 노조 단체 결성을 허가하여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ILO)의 기준을 준수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외국인직접투자와 국제기구 지원을 통해 중국, 인도, 태국 등의 주변국과의 국경지역 도로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며, 지역 간 격차를 좁히기 위한 전력, 통신, 도로, 인프라 프로젝트 진행이 예정되어 있다.

#### 2.1.1. GDP 증가율

2015년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inance, IMF)가 발표한 경제전망보고서<sup>17)</sup>에 따르면, 미얀마의 실질 GDP 성장률은 2013년 이래로 8%대 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왔으며, 2016년에도 8.5%대 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본고에서는 미얀마의 2015년 주요 경제성장 동력으로 에너지 및 통신 투자 확대, 건설 및 인프라 서비스 투자 지속, 기초원자재 수출 증가, 관광객 증가, 외국인투자 증가 등의 안건을 나타냈다<표 3 참조>.

#### 2.1.2. 물가 및 환율

단기간의 고성장에 따른 통화압력으로 인해 2015년 미얀마의 물가상승률은 8% 수준에 이르렀고, 2016년 출범한 신정부는 이러한 고물가 문제를 경제 주요 과제로 해결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공공부문 급여 인상, 전기료 인상, 부동산 가격 및 임대료 상승, 소비자 물가상승, 무역적자 확대, 정부의 제한된 거시경제 관리 능력 등이 미얀마 경제성장의 장애요인으로 작용될 것으로 판단된다.

#### 2.1.3. 무역 수지

미얀마의 신외국인투자법 시행과 더불어 미국과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의

17) 미얀마 회계연도는 전년도 4월부터 당해 연도 3월 31일까지임.

---

대(對)미얀마 경제제재 완화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미얀마의 경상수지 적자는 2012년도 섬유 의류분야, 2013년도 천연가스 분야의 수출 증가 등으로 인해 다소 개선되었다. 그러나 2014년도 인프라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대규모 자본재 수입으로 인하여 상품수지가 악화되었고, 설상가상으로 외국인투자기업의 과실송금 증가로 인해 소득수지 적자폭이 커짐에 따라 최근 3년간 무역수지 적자 폭이 확대되고 있다.

#### 2.1.4. 무역 구조

2014년도 기준, 미얀마 대(對)세계 주요 수출 품목은 주로 1차 산업으로 광물성 연료에너지, 목재 및 목탄, 농산물 및 의류 등이며, 주요 수입품목은 주로 2차 산업의 자본재로 일반차량, 기계 및 철강제품이 주를 이룬다. 2014년도 미얀마의 최대수출국은 중국(37.3%), 태국(32.2%), 싱가포르(6.1%), 인도(6.0%), 일본(4.4%), 순이며, 최대 수입국은 중국(30.2%), 싱가포르(24.9%), 일본(10.5%), 태국(10.1%), 말레이시아(4.5%) 순이며, 한국은 미얀마의 수출입 모두 6위를 차지했다.

관세청 무역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대(對)미얀마 수출현황은 2005년부터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였으며, 2012년도에는 13억 3,089만 달러(US\$)를 기록하며 수출최고치를 달성했다. 그러나 2013년에는 전년 동기 대비 47%가 감소한 7억 510만 달러를 기록했다. 한국 대(對)미얀마의 5대 수출상품을 살펴보면, 2014년 수출액 기준 산업기계, 수송기계, 직물, 섬유제품, 플라스틱제품 순이며, 특히, 산업기계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약 30%, 수송기계의 수출이 약 57% 증가했다. 또한 수입현황을 살펴보면, 수출에 비해 규모는 작으나, 2009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이며, 소비재를 주로 수입하고 있다. 한국 대(對)미얀마의 5대 수입상품은 섬유제품, 농산물, 신변잡화, 비철금속제품, 임산물 순이다. 특히 신변잡화의 수입이 전년동기 대비 약 74% 증가했다.<sup>18)</sup>

#### 2.1.5. 산업 구조

미얀마는 식민지시기에 세계 최대의 쌀 수출국이었을 만큼 농업강국이 있었으며, 2015년에도 농업은 GDP의 30% 중반 대를 차지하며 여전히 산업구조 상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농업관련 관개시설 확충, 비료공급, 농업기술 등이 아직 미흡하여, 농업생산성이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미얀마의 산업구성은 노동집약적 제조업,<sup>19)</sup> 서비스업, 농업이 주를 이루며, 외국인투자 주요 분야는 천연자원 개발 및 대

---

18) 2015년 10월 기준 전년 동기대비.

19) 미얀마의 제조업은 시장개방이 지연됨에 따라 발전 수준이 산업 초기단계에 정체되어 있음.

규모 인프라 개발프로젝트에 집중되어있다. 2012년도 미얀마는 천연가스 생산 증가, 건설업 호조로 7.3% 경제성장률을, 2013년도에는 서방국가들의 경제제재 완화로 인프라 프로젝트 투자 확대, 민간소비 증가, 천연가스 수출 증가에 힘입어 8.4% 성장률을, 2014년도에는 가스, 전력관련 자원개발 및 교통 인프라 프로젝트 확대 그리고 관광서비스시설 확충 등으로 8.5%의 성장률을 기록했다<표 3 참조>.

표 3 미얀마의 주요 경제 지표

구분(단위)		회계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f
대내	실질경제성장률(%)		5.6	7.3	8.4	8.5	8.5	8.4
	1인당 GN(달러(US\$))		1,118	1,100	1,112	1,228	1,269	1,364
	명목 GDP (십억 달러(US\$))		40.3	54.9	58.6	58.6	65.8	69.6
	소비자물가(CPI)(%)		-1.1	2.8	5.7	5.9	12.2	11.8
	이자율(%)		16.3	13.0	13.0	13.0	13.0	13.0
	실업률(%)		4.0	4.0	4.0	4.0	4.0	4.0
대외	수출 실적(백만 달러(US\$))		7,699	8,220	9,404	9,083	9,565	11,502
	수입 실적(백만 달러(US\$))		7,491	-7,629	-9,404	-12,088	-12,268	-14,553
	대외의존도(%)		27.0	28.4	32.6	36.1	36.7	-
	경상수지(백만 달러(US\$))		-1,561	-2,322	-2,960	-3,851	-5,867	-5,895
	FDI외국인투자금액(당해분)		4,644.5	1,419.5	4,107.1	8,010	-	-
	총외채잔액(백만 달러(US\$))		8,371	13,700	10,200	8,800	9,700	11,200
	외환보유고(백만 달러(US\$))		7,017	6,977	8,278	8,727	9,417	10,002
	환율(달러(US\$))		815	852	934	984	1,159	1,305

주: f는 2016년도 전망치임.  
 자료: IMF, EIU, WB, Oxford Economics, 미얀마통계청(CSO), KOTRA.

## 2.2. 미얀마 농촌 연왕

미얀마 농업은 GDP 비중 및 외화 수입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미얀마는 기후적으로 풍부한 수량과 비옥한 토양, 고온의 열대기후는 최적의 농업환경을 제공되어 60개 이상의 다양한 품종의 농산물이 재배가능하다. 토지의 구분은 남부의 광활한 델타지역, 약 1,960km에 달하는 해안선지역, 중부 건조 지역, 동서북 산악지역으로 나뉜다. 전체 16만 7,186에이커(acre)의 면적 중 경작지의 면적은 18.6%인 3만 711에이커(acre)이며, 특히 벼 경작 면적은 이 중 약 40%를 차지한다. 그러나 미얀마에는 농업관

런 산업인프라가 낙후된 상태로 인해 주변국(예: 베트남, 태국)에 비해 농업생산성은 매우 낮은 편이다.<sup>20)</sup> 미얀마의 농업인구는 2012/13년 기준 총인구 6,365만 명 중 70% 이상을 차지하며, 농업의 주요 생산물인 쌀은 미얀마의 주식으로 정부에서는 쌀 증산을 최우선 순위를 두고 있다. 쌀 생산은 재배 면적 확대, 관개시설 확충을 통한 다모작, 종자 개량 및 기술 보급을 통해 지속적 농촌 환경 개선에 주력하고 있다<표 5 및 그림 4 참조>.

1930년대에는 세계 주요 쌀 수출국이었으나, 그 동안 군사 독재체제 하의 정부가 사실상 수출을 독점하며 비효율적인 경제운용, 인구 증가에 따른 국내 수요의 증가와 신규 농경지 확대 한계, 기술수준 낙후로 인한 생산성 정체로 쌀 수출이 급격히 감소했다. 정부 쌀 수출 독점은 2011년에 폐지되어 현재는 쌀 수출이 자유화된 상태이다.

미얀마 쌀 연맹(Myanmar Rice Federation, MRF)에 따르면, 미얀마 정부는 2019/20년도 쌀 생산목표를 14억 9,800만 톤 및 수출 목표를 480만 톤으로 설정하고 있다<표 5 참조>. 또한 전체 쌀 경작지 면적은 2012년도 기준 1,857만 6,565에이커(acre)이며, 우기(Monsoon)의 경우 약 86% 수준인 1,597만 868에이커를 차지하고, 건기(cool season)의 경우 약 14%인 265만 607에이커를 차지하고 있다.

표 4 미얀마의 계절별 영농 형태

구 분		내 용
우기	5월 하순 ~ 10월 초순 (Monsoon)	많은 강수량과 고온으로 열대작물 재배 가능
건기	10월 중순 ~ 11월 하순 (Post Monsoon)	추워지는 계절을 대비한 벼 등 주요 작물의 육묘 시작
	12월 초순 ~ 2월 초순 (Cool season)	섭씨 17~30도 기온에서 생산이 가능한 온대작물 재배
	2월 중순 ~ 5월 중순 (Pre- monsoon)	건조한 기후로서 관개수를 이용할 경우 영농 가능

자료: 농림수산물기술기획평가원(PET) “미얀마의 농업현황 및 개발지원 전망(2012)” 을 바탕으로 저자가 재작성함.

표 5 미얀마의 연간 쌀 생산 및 수출 목표 값

단위: 백만 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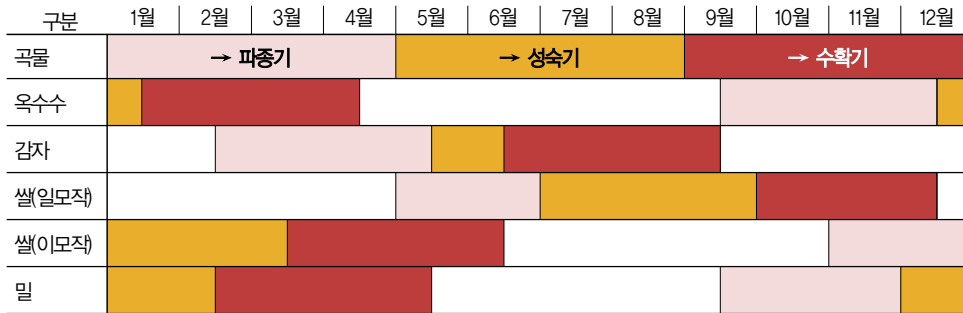
회계 연도	2012	2013	2014(목표)	2019(목표)
생산량	1,290	1,286	1,331	1,498
수출량	1,47	1,80	2,50	4,80

주: 연도별 통계 기준은 4.1일부터 차년도 3.31일까지임.  
 자료: 미얀마 중앙통계청(Central Statistical Organization).

20) 미얀마 농업 생산은 비료 및 우수 증자, 토지의 개간이 부족하며 열악한 저장 시설 및 운송 수단으로 인해 생산량이 토지생산 능력에 미치지 못하고 품질도 낮아 수출 시 가격이 낮게 책정됨.



그림 4 미얀마의 연간 작물 생산 일정



자료: FAO/GIEWS(2016).

### 2.2.1. 주요 작물 생산 연왕<sup>21)</sup>

미얀마의 주요 수출 농산물<표 6>은 쌀, 콩, 깨, 옥수수, 캐슈넛, 생고무, 양파, 마늘 등이 있으며, 최근 가장 많이 수출되는 품목은 콩이다.<sup>22)</sup> 미얀마의 콩은 쌀과 더불어 대표적인 1차 수출 품목이라 할 수 있는데, 1987년 이후 콩의 생산 및 수출이 크게 늘었다.<sup>23)</sup> 미얀마의 콩은 약 17가지 종류가 있으며, 주로 남부지방인 이라와디(Ayeyarwady) 및 바고(Bago) 지역에서 검은 콩과 녹두가 생산되고, 북부지방에서는 비둘기콩이 주로 생산된다. 그 중 검은 콩(Blacrerek gram), 녹두(Green gram), 비둘기콩(Pigeon pea)이 미얀마 콩 수출의 80~90%를 차지한다. 미얀마 산 콩의 최대 수출 대상국은 인

표 6 미얀마의 주요 농업 작물 종류

구분	내 용
곡류	쌀, 밀, 옥수수, 사탕수수
두(豆) 류	땅콩, 참깨씨, 해바라기씨, 겨자씨,
유지 작물	검은 콩, 녹두, 대두, 비둘기콩, 강낭콩, 리마콩, 병아리콩, 건포도
특용 작물	목화, 설탕, 황마, 고무, 커피, 오디, 오일팜
가정용 작물	칠리, 양파, 마늘, 생강, 강황, 감자
과일 및 채소	망고, 바나나, 감귤, 배, 파인애플, 람부탄, 아열대성 야채

자료: Myanmar Agriculture in Brief (2014).

21)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2016. 「국가정보 - 미얀마」 양곤사무소.

22) 미얀마 주요 농산물 생산량은 2013년 회계연도 기준, 쌀 119만 2,000톤, 옥수수 93만 3,000톤, 콩류 131만 톤, 참깨 17만 2,000톤 등임.

23) 2013년 미얀마의 콩 수출량으로는 4위, 수출액으로는 쌀에 이어 2위를 차지함.

도이다.<sup>24)</sup> 미얀마에서 콩은 쌀에 비해 정부의 개입으로부터 거래가 자유로웠고, 이에 농민들이 보다 자유롭게 수출할 수 있다는 점이 수출 확대에 이어질 수 있었다. 미얀마 통계청에 따르면, 미얀마의 콩 수출은 2012년도에 148만 3,700톤으로 9억 6,170만 달러를 수출했고 이는 1987년 대비 수출량은 14%가 증가했고, 수출액은 2% 감소했다.

표 7 미얀마의 주요 농산물 생산량

단위: 천 톤

회계 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쌀	32,065	28,552	26,216	26,372	26,423
옥수수	1,354	1,462	1,502	1,601	1,693
두(豆) 류	5,486	3,887	4,091	4,208	4,276
유지 작물	2,245	2,270	2,274	2,332	2,352
목화	541	525	459	501	524
사탕수수	9,250	9,537	9,413	10,307	11,128
고무	126	147	162	174	195
커피	7.3	7.6	8	8.1	8.4

주: 두류(17가지 두류의 생산량을 합한 값), 유지작물(땅콩, 참깨, 겨자의 생산량을 합한 값), 목화(Long staple, Wagyi, Mahlaing)목화의 생산량을 합한 값.

자료: CEC, 미얀마 중앙통계청(CSO), 미얀마 국가계획경제발전(MNPED).

쌀과 콩 다음으로 미얀마에서 중요한 농산물은 유지종자(oil seed)이다. 대표적인 유지종자는 낙화생유(Ground nut oil)과 참기름(Sesame oil) 등이 있으나, 낙화생유는 미얀마 소비량의 90%이상을 차지한다. 현지 전문가들에 따르면, 참기름 생산량이 전체의 30%를 차지하고 있으나 이는 대부분 국경의 불법무역을 통해 거래되고 있어, 내국인 수요는 적은 편이라고 한다. 또한 해바라기씨유(Sunflower oil)도 있으나, 낙화생유와 참기름과 혼합 제조되어 시장에 판매되고 있는 실정이다.

미얀마에서 비료 및 농약은 주로 콩과 채소 재배 시 많이 사용되는데, 이는 주로 태국, 중국, 인도, 싱가포르, 일본 등에서 수입되고 있으며<sup>25)</sup>, 만달레이, 양곤지점을 통해 전국으로 유통되고 있다. 미얀마의 농약 수요량의 경우, 10년<sup>26)</sup> 사이 약 4배 증가했으

24) 2012년도 기준, 미얀마의 콩 수출 부문에서 인도가 전체 수출량의 약 62%를 차지하며 1위이며 뒤이어 싱가포르, 중국이 순위를 차지함. 그 배경으로는 1960년대 녹색혁명(Green Revolution)의 일환으로 인도 농업의 중심을 쌀과 밀로 전환했고, 이에 따라 콩 재배 면적이 대폭 축소됨. 따라서 인도 내수시장에 콩 부족 현상이 발생해, 미얀마 대(對) 인도 수출 수요가 급증했기 때문임.

25) 비료와 농약의 가격은 농산품의 최종가격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농산품의 생산력 향상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미얀마는 이 부분에서 자급자족이 안되며 취약한 상태임.

26) 2002년도 기준(2,875톤) 대비 2011년도 기준(1만 1,102톤)임.

며, 비료의 경우, 5년 간<sup>27)</sup> 약 2배 증가했다. 그러나 미얀마의 비료 투입량은 1헥타르 (ha)당 30~60kg 수준으로, 이는 주변 국가들<sup>28)</sup>에 비해 투입량이 낮은 편이다. 이는 향후 미얀마의 비료 시장 확대 가능성을 나타내기도 한다. 미얀마 통계청과 농업관계부에 따르면, 2012년 기준 미얀마의 비료 수입액은 1억 6,790만 달러로 이는 전년대비 830%의 성장한 것이다.

### 2.2.2. 도매시장 현황<sup>29)</sup>

미얀마 농가 대부분이 대형 쌀 도매상들이 차지하며, 거래 형태는 선도거래를 실시한다. 농가들은 이 대형 도매상을 통하지 않을 경우 쌀 판매의 활로를 찾기 어렵다. 미얀마에는 경매와 같은 가격결정 시스템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쌀 도매의 단위는 대부분 50kg P.P(PolyproPylene, P.P)로 거래되며, 도매상들은 산지에서 매입한 쌀을 자체 브랜드 포대에 재포장하여 판매한다.

도매단계에서 해포 및 재포장 시, 인건비가 발생하여 산지에서부터 포대로 포장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으나, 산지에서 매입한 쌀의 경우 포대 당 중량이 50kg를 초과하여 결과적으로 재포장할 시 순이익이 인건비를 초과(산지 10포대→ 재포장 후 11~12 포대)하기 때문에 산지에서 자체포장을 실시하지 않는다.

### 2.2.3. 소매시장 현황<sup>30)</sup>

미얀마에는 소매 거래를 위한 재래시장이 발달하여 대부분의 내국인들이 현지재래 시장에서 쌀을 구매할 수 있다. 미얀마의 1인당 쌀 소비량은 2012년도 기준 180kg으로 미얀마인 대다수가 50kg P.P대 형태로 구매를 한다. 쌀 소매 판매가격은 쌀의 종류만 큼이나 다양한데, 가격 범위는 50kg당 최저 1만 7,000짜트(약 18달러)에서 최고 8만 짜트(약 83달러 수준)이다.<sup>31)</sup> 외국인의 경우에는 대형마트 또는 식료품전문점(City Mart Supermarket)<sup>32)</sup> 등에서 주로 쌀을 구매하는 편인데, 이곳에서 판매되는 포장단위는 주로 1kg, 2kg, 5kg가 있다.<sup>33)</sup>

27) 2007년도 기준 대비 2011년도에 2,000만 톤이 수입됨

28) 베트남의 경우 ha당 비료를 285kg, 태국 90kg, 필리핀 130kg, 중국 256kg 사용함.

29)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014. 「캄보디아 및 미얀마 쌀 시장조사 결과 보고」, 곡물사업처 사업개발팀, p. 17.

30)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014. 「캄보디아 및 미얀마 쌀 시장조사 결과 보고」, 곡물사업처 사업개발팀, p. 18.

31) 환율 : US\$1 = 958Kyat(짜트), '14.4.30일 기준.

32) 미얀마 내 18개 지점 보유.

33) 포장단위 1kg의 경우, 현지가격으로 최저 1,100짜트(평균 약 1.3 달러 → 50kg로 환산 시 약 64 달러 ~ 최고 1,350짜트 수준 이고, 포장단위 2kg의 경우, 최저 2,000짜트(평균 약 3.47달러 → 50kg로 환산 시 약 87달러 ~ 최고 4,650짜트 수준임. 포장 단위 5kg의 경우, 최저 4,500짜트(평균 약 8.35달러 → 50kg로 환산 시 약 83.5달러 ~ 최고 1만 1,500짜트 수준임.

### 3. 미얀마 농업정책 및 발전 방향

#### 3.1. 농업 정책 동향

표 8 미얀마의 시대별 농업정책 변천사

구 분	주요 사항
식민지 시대 (1886년 ~ 1948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얀마의 자급자족적 농업에서 수출중심 농업으로 발전됨.</li> <li>• 영국 공산품과 미얀마 쌀이 교환됨.</li> <li>• 에이워드(Ayeyarwady) 델타지역에 벼 운송을 위한 운하가 건설됨.</li> </ul>
민간정부 시대 (1948년 ~ 1962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62년 쿠데타 직전 벼 수출량 168만 톤으로 급증함.</li> <li>• 시장거래와 국가의 벼 구매 분배 제도가 병행됨.</li> </ul>
사회주의 군사독재 시대 (1962년 ~ 1988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토지 및 기업의 국유화 및 농업 중시 정책을 추진함.</li> <li>• 벼 등 주요 작물 42개 수확물에 대한 정부 통제가 강화됨.</li> </ul>
시장경제 군사독재 시대 (1988년 ~ 2011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업전반에서 정부 역할 축소됨. 예) 쌀 구매 축소</li> <li>• 사회주의 군사독재 시절 제도와 시장경제적 제도가 혼합됨 → 민간부문의 농업 진출 증가로 벼 재배 면적 확대됨.</li> </ul>
민간정부 시대 (2011년 ~ 현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 정치 민주화 추진 노력과 대외적으로 대중 외교 노선 탈피 등으로 미국과 EU 등 경제제재 완화를 통해 해외자본 획득이 수월해짐. → 특히, 미얀마 정부의 외국인투자유치 노력 힘입어 외국인 투자자들이 대거 현지에 진출함.</li> <li>• 이전에는 정부가 농지를 소유하며 농민에게 경작권만 인정했었으나 2011년 이후 사실상 농민의 경작권은 소유권이며 경작원에 대한 매매와 임대 가능해짐.</li> </ul>

자료: KOTRA 양곤 무역관(2009),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PET).

미얀마는 영국 식민지시기를 겪으며 농작물의 소규모 재배하는 방식을 대규모 생산 방식으로 탈바꿈하며 수출지향형 생산을 추구하게 되었다. 이는 미얀마의 농작물 생산량을 급격히 증가시키는 원인이 되었고, 1930년대 미얀마는 ‘세계최대 쌀 생산지’라는 명성을 얻었다. 그러나 1948년 독립 이후, 군부의 쿠데타로 군사 독재 치하에 놓인 미얀마는 정부가 쌀을 비롯한 42개의 주요 특용작물에 대한 독점권을 장기화시키는 데 따라 사실상 자유시장경제의 기능을 상실해가고 있었다. 이로 인해 미얀마 농산품의 수급 불균형 상태는 계속되었고, 농업기술 수준도 점차 낙후되면서 한계에 도달하게 된다. 이에 대한 대처방안으로 정부는 1990년대부터 시장의 민간부분 역할을 점차 확대시켰으며, 2011년 이후부터 농민의 경작권을 소유권으로 인정하면서 사실상 시장의 기능을 강화시키는 노력을 해왔다.

### 3.1.1. 정부 구매 정책<sup>34)</sup>

1989년 WTO 회원국 가입 이후에도, 미얀마 정부는 쌀의 배급체계와 구매제도를 독점 유지해왔으나, 2003년부터는 동 제도를 일부 폐지하고, 2011년에는 완전 폐지했다. 정부의 구매물량 보관방식은 전국의 각 지역별 창고에 군부대에서 보관(미얀마경제공사와 군부대 합동)하도록 하였고, 군인, 공무원들이 배급해왔고 그 중 일부는 수출 물량으로 정해져있다. 쌀은 정부가 정한 구매가격으로 거래가 이뤄짐에 따라 재정상의 손실을 본적이 없으나, 국제가격 하락 시에는 수출부문에서 손실이 발생한 적이 있었다.

### 3.1.2. 생산 정책

미얀마는 쌀 생산을 증가시키기 위해 미얀마농업개발은행(Myanmar agricultural development bank, MADB)을 통해 1에이커 당 103달러의 한도로 융자를 도왔다. 농가에서는 파종 때 투입이 가능하고 수확 시엔 상환<sup>35)</sup>을 해야만 했다. 정부에서는 종자개발을 위해 농가에 종자를 원가로 판매하였고, 설비투자부분에서 농기계 판매 및 대여 등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했다. 정부는 또한 향후 기반시설 개발, 영농 기계화 발달, 기술 지원 등 농가 지원방안을 계획하고 있으나, 농가 예산부족으로 인해 다소 실행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 3.1.3. 수출 정책(관세변화)<sup>36)</sup>

미얀마는 국내 쌀 공급 조절 및 지역 가격통제를 위해 2004년 1월 1일부터 6개월간, 또는 2011년 2월부터 5월까지 일시적으로 쌀 수출을 제한하기도 했다. 미얀마 정부는 민간 수출업체에게 쌀 수출 승인을 불허함으로써<sup>37)</sup> 정부가 사실상 쌀 수출을 독점하였으나<sup>38)</sup>, 2011년부터 쌀 수출 장려정책의 일환으로 수출 독점을 폐지함에 따라 쌀 수출이 자유화되어 현재는 국영기업인 미얀마경제공사(Myanmar Economic Corporation, MEC)와 민간 수출업체가 쌀 수출을 수행하고 있다.<sup>39)</sup> 미얀마의 쌀의 주요 수출시장은 아프리카, 유럽, 중국, 일본이고, 현재 한국과의 쌀 수출은 없지만, 수출 향로가 발굴되

34)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2014, 「캄보디아 및 미얀마 쌀 시장조사 결과 보고」, 곡물사업처 사업개발팀, p. 16.

35) 시중금리 연간 15~18% 수준이며, 차입 시 부터 상환 시 까지 8% 금리 적용.

36)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2014, 「캄보디아 및 미얀마 쌀 시장조사 결과 보고」, 곡물사업처 사업개발팀, p. 19.

37) 미얀마 쌀 수출업체들은 상무부로부터 수출허가를 받아야만 수출거래가 가능했음.

38) 2011년 전까지는 국영기업인 미얀마 농산물무역회사(Myanmar Agricultural Produce Trading)가 쌀 수출을 수행함.

39) 미얀마경제공사(MEC)는 2013년 기준 10만 톤 구매 및 8만 톤 수출했으며, 미얀마의 쌀 수출세(tax)는 2013년 5월부터 8%에서 2%로 감소하였고, 소득세는 2% 대를 적용되고 있음.



고, 한국에 수요자가 있다면 수출할 의향이 있다고 현지 수출업자들은 밝히고 있다.

### 3.1.4. 수입 정책<sup>40)</sup>

인도와 미얀마는 ‘인도-아세안 물품무역협정(India-ASEAN Trade in Goods Agreement)’에 가입하였으며, 미얀마로부터 인도로 수입되는 쌀에는 쌍방향 무관세가 적용된다. 미얀마는 후진국을 위한 인도의 무관세특혜제도(Duty Free Tariff Preference Scheme) 혜택을 적용함에 따라 2016년 말까지 인도와의 물품거래에 있어서 무관세가 적용된다.

## 3.2. 양우 농업 발전 방향성

### 3.2.1. 농업 발전의 애로사항

미얀마는 쌀 생산 면에서 주변국(예: 베트남, 태국)에 비해 기후·지리적으로 유리한 조건을 가진 편<sup>41)</sup>이지만, 미얀마의 농업부문이 국제적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취약점들이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미얀마 농업부문의 취약점들은 △관개시설 부족<sup>42)</sup> △물류 이동 및 저장 수단 부족<sup>43)</sup> △계절적 요인에 따른 전력 공급의 불안정성<sup>44)</sup> △생산의 전(全)과정을 걸쳐서 겪고 있는 금융 지원 부족 △품종 개량을 위한 연구 활동 및 농업 전문인력 부족 △불안정한 토지경작권<sup>45)</sup> 등 제도적 결핍들이 미얀마의 농업경쟁력 저하를 지체시키고 있다<sup>46)</sup>. 아래 <그림 5>는 미얀마의 쌀 생산 가치사슬 상에 종사자들이 느끼는 애로 사항들을 정리한 것이다.

40)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014, 「캄보디아 및 미얀마 쌀 시장조사 결과 보고」, 곡물사업처 사업개발팀, p. 20

41) 미얀마의 기후는 때에 따라 3모작이 가능한 곳이 있으며, 기본적으로 북쪽, 남쪽 지역 모두 최소 2모작이 가능한 정도임. 남쪽 지역은 2년에 7모작이 가능한 때도 있을 정도로 쌀 생산에 있어서 미얀마의 기후상태는 상당히 유리한 편임.

42) 미얀마는 경작지의 18.5%에만 관개시설이 구축되어 있을 정도로 쌀의 가공 및 저장 등을 위한 시설 설비역량이 부족함(수출입은행, 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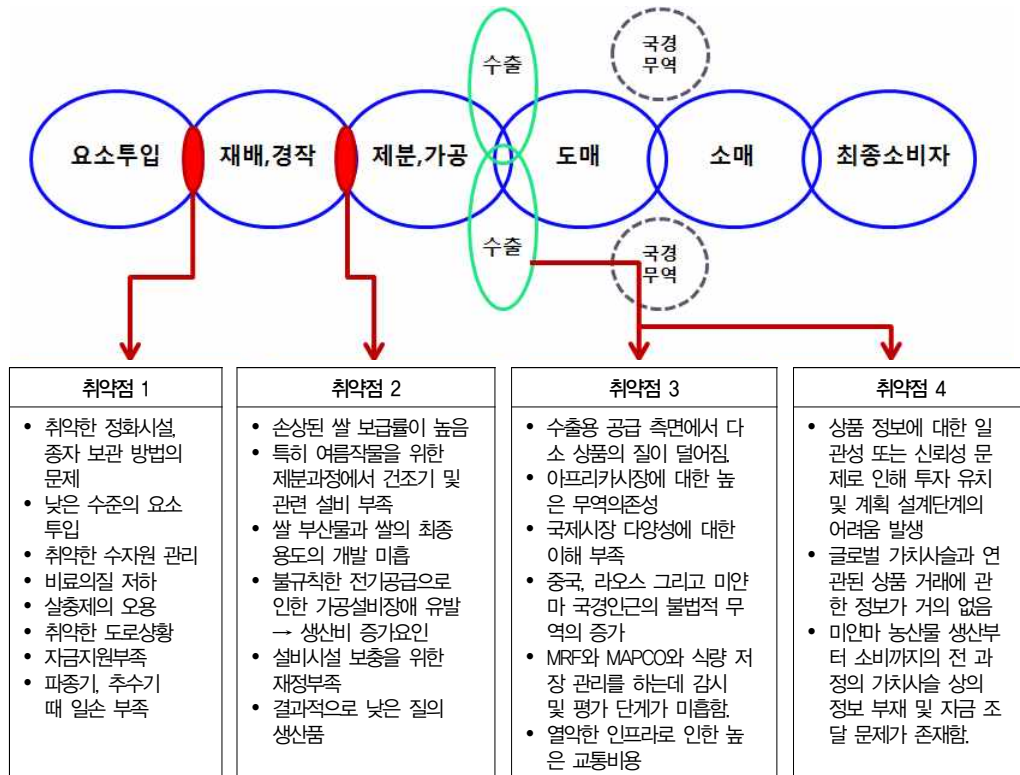
43) 미얀마는 도로 포장률이 전 국토의 12%에 불과하며 주요도시는 고속도로가 건설되었으나 소도시 및 농촌지역으로의 접근성은 낮은 편임. 또한 항만 및 공항시설도 부족하여 농업 부문은 시설 설비 및 인프라 건설관련 투자가 우선시 되고 있음(수출입은행, 2013).

44) 미얀마의 전력생산은 수력발전이 68%, 화력이 32%를 차지하고 있음(수출입은행, 2013).

45) 정부는 1960년 전 국토의 토지를 국유화했고, 2012년 농지관리법(Farmland Law and Vacreerant and Virgin Land Management Law)을 개정하여 토지 거래가 가능해졌음. 하지만 거래만 가능할 뿐 토지의 소유권은 정부가 보유하고 있으며 사용 조건 위배 시(예: 정부의 인허가 없이 건물 구축) 토지경작에 대한 자격이 박탈됨(수출입은행, 2013).

46) 미얀마가 태국이나 베트남과 같은 주변국에 비해 쌀 생산성이 낮은 이유는 비료(수입의존이 높음) 사용이 낮고, 기계화 수준차이가 크다고 함.

그림 5 미얀마의 쌀 생산 가치사슬 상의 애로 사항들



주: MAPCO(Myanmar Agribusiness Pubic Corporation Limited), 미얀마 쌀 연맹(MRF:Myanmar Rice Federation).  
 자료: ADB(2015), "Myanmar's Agriculture Sector: Unlocking the Potential for Inclusive Growth" p. 8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가 재구성함.

### 3.2.2. 농업 정책의 방향성<sup>47)</sup>

2014년도 기준 미얀마의 농축산업, 임업부분은 전체 GDP의 약 30%를 차지했고, 농업 부분은 그 중 70%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국가 경제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미얀마의 농업 발전은 국가경제 발전의 근간을 마련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농업의 발전을 위한 3대 목표를 제시했는데 △식량 자급자족 △농산물 수출 증대를 통한 외화 획득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지원 노력이 그 내용이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5대 전략 분야로는 △새로운 농경지 개발 △충분한 관개수의 공급 △농업 기계화의 추진 △신(新)농업 기술의 수용 △새로운 품종 개발을 제시했다.

향후, 농업 발전을 위한 정책적 노력의 일환으로 정부는 농민들의 작물 선택의 자유

47) 출처: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IPET), 2012, 「미얀마의 농업현황 및 개발지원 전망」 p.5.

를 허용하고 단(單)년생 농산물 생산을 권장하여 품종 다양화를 실시할 계획이며, 농기계 설비 및 투입재부문의 민간 투자를 유도하여 농산물 품질 향상을 위한 연구개발 활동을 적극 권장할 방침이다. 또한 정부는 국제 협력을 통해 농촌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종자의 품질 향상 방안을 모색하는 중이다. 아래 <표 9>는 위에 언급한 미얀마의 농업발전을 위한 3대 목표, 정책방향, 5대 전략을 정리한 내용이다.

표 9 미얀마의 농업발전을 위한 목표, 정책방향, 전략

3대 목표	정책 방향	5대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식량의 자급자족</li> <li>• 농산물 수출증대</li> <li>• 농업생산성 증대를 통한 농업/농촌 발전의 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작물 선택의 자유 허용</li> <li>• 농경지 확대</li> <li>• 단년생 농산물 생산 그리고 농기계와 투입재 부문에 대한 민간 투자 권장</li> <li>• 농산물 생산성 증대와 품질 향상을 위한 연구개발 활동 권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새로운 농경지 개발</li> <li>• 충분한 관개수의 공급</li> <li>• 농업 기계화의 추진</li> <li>• 신농업 기술의 수용</li> <li>• 새로운 품종의 개발</li> </ul>

자료: 농림수산물기술기획평가원(2012).

향후 지속가능한 농업 발전을 위해 미얀마 정부는 △농업 전문 인력 확충, △화학비료 적절한 사용을 통한 농산품 품질 향상 △농기계들의 선진화, 금융 지원 접근성 △농산물 판매방법<sup>48)</sup> 등을 주요 과제로 삼고 있다.

또한 정부는 국제기구, ODA, 양자간, 민관협업 등의 다양한 협력방식을 통해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술 개발 및 지원 확대 △복잡하고 독점화된 농수산물 유통구조 시스템의 정비 △농기계 부족 △물류이동시스템 확충 △도로·항만·공항 등의 인프라를 동시에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예를 들면, 국제기구의 다자간 협력을 통한 기술지원으로는 석유수출기구(Organization of the Petroleum Exporting Countries, OPEC)의 식용 및 연료용 유지작물 생산기술지원 식량농업기구(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FAO)과 국제쌀연구원(International Rice Research Institute, IRRRI)의 벼 생산 기술 지원이 있으며, 농업 개발 분야의 전문 인력 교육 및 필요시 금융 접근성을 강화하여 민간기업의 투자 확충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양자 간 협력으로는 일본 자이카(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JICA)의 경우, 마약(예: 양귀비, 대마)의 대체작물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양질의 쌀 품종에 대한 증식 및 보급 개발 프로젝트에 힘쓰고 있다. 또한 중국의 경우, 채소, 열대과실, 약용

48) 미얀마는 농산물 마케팅 분야에서 거래와 이익의 공정성을 보장하는 농산물 유통 구조를 개발할 필요가 있으며 종자, 농약, 비료, 농기계 등 우수한 농업 자재 생산능력 강화 필요함.

식물과 사료곡물 등 농기계 지원을 통하여 생산기술을 이전하고 그 생산물을 중국과 동남아로 수출하도록 지원해주고 있다.<sup>49)</sup> 미국 국제개발원(The United State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USAID)의 경우, 미얀마의 식량안보를 위한 종합적인 접근으로 농업관련 교육 및 연구지원, 지속가능한 자원관리 지원, 그리고 민관협력을 통한 농업관련 투자확대를 유도하고 있다. 싱가포르의 경우, 미얀마 산업작물개발공사(Myanmar Industrial Crops Development Enterprise, MICDE)와 캐슈너트(Cashewnut) 합작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며, 대만의 경우, 차명으로 연구소 설립, 수박종자 판매, 자체농장 운영 등 중국계가 주를 이루며 공식적인 외국인투자법인보다 현지인 명의를 빌리는 사업 형태로 진행 중이다.<sup>50)</sup>

아래 <표 10>은 아세안센터가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미얀마에서 농장을 개발하는 형태를 분류한 표이다. 농장 개발에는 크게 4가지 형태로 분류되는데 ①외국인투자를 통한 농장개발, ②미얀마정부와의 합작개발, ③현지민간기업과의 합작개발, ④기업이 소유한 토지를 임대한 개발한 형태가 그 예이다. 자세한 내용은 표 내용과 같다.

표 10 미얀마의 농장개발의 형태 분류

외국인 투자 농장개발	미얀마 정부와 합작 준정부 기관	현지 민간 기업과의 합작 개발	현지 기업의 소유 토지 임대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투자승인 모든 세금관계를 달러(US\$)로 계산할. 내국기업에 비교하여 지출 승인이 장기간 소요되며, 농업에서는 1 건도 없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동 국가들, 일본 기업 등이 그 예이며, 이익 배분에 있어서 많은 부분을 미얀마 측이 갖게 됨.</li> <li>투자에 있어서 현금 현물 투자는 없고 토지제공 및 대정부 관계 조정을 담당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미얀마 기업이 토지 부분을 담당하고 그 외의 일들은 양측의 계약에 의해 진행하며 주로 현지인 인력관리 및 정부 관계는 현지파트너가 담당함.</li> <li>농산물에 대한 전체 재정관리는 한국 측이 담당하며, 세금관계는 현지 회사에 준함. 많은 중국 기업들이 국경 지역에서 대규모 농업 개발을 진행하고 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단순 임대료만 지급하고 발생하는 위험을 한국 측이 모두 감당하게 됨.</li> <li>법적 적용에 있어 임대 개발이 승인되면 외국 기업으로 양 회사 간 계약으로 진행하면 현지 법인으로 적용됨.</li> </ul>

자료: 아세안센터(2014).

미얀마 정부는 농업 생산을 확대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농업 관련 제품의 관세 및 상업세를 면제하고, 농민에게 저리의 융자 혜택 및 소액금융 서비스를 확대할 것이며, 농업의 기계화를 확대하여 생산성 향상 등 정책적 노력을 꾸준히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농업생산에 활용되는 농약, 비료 등과 같은 기초 화학제품 생산 관련 분야의 외국인 투자 진출을 적극 권장할 예정이다.

49) 중국의 경우, 미얀마 농업공사(MAS)와 시트로넬라유(citronella oil) 합작프로젝트(412만 달러(US\$), 기계 및 현물투자를 진행 중임

50) 농림수산물기술기획평가원(PET), 2012, 「미얀마의 농업현황 및 개발지원 전망」, pp.7~9.

---

## 참고 문헌

- 김동호. 2014. 「미얀마 농업 개발」. 아세안센터.
- 농림수산물식품기술기획평가원(IPET). 2012. 「미얀마의 농업현황 및 개발지원 전망」. IPET.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2016. 「국가정보 - 미얀마」 양곤사무소 KOTRA.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2014. 「미얀마, 두류 생산 및 수출 동향 요약」. KOTRA.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2014. 「미얀마 농업 현황」. 양곤사무소. KOTRA.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2014. 「캄보디아 및 미얀마 쌀 시장조사 결과 보고」 곡물사업처 사업개발팀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 한국수출입은행. 2013. 「미얀마 유망산업분석과 시사점」. 해외경제연구소 한국수출입은행.
- Asia Development Bank. 2015. *Myanmar's Agriculture Sector: Unlocking the Potential for Inclusive Growth* ADB.
- Myanmar of Agriculture and Irrigation. 2014. *Myanmar Agriculture in Brief 2014* MOAI.

## 참고사이트

- 국제통화기금(IMF) (<http://www.imf.org/>)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http://www.globalwindow.org>)
- 미얀마 중앙통계청(CSO), (<http://www.mmsis.gov.mm/>)
- 미얀마 국가경제발전계획부 (MNPED),(<https://www.mnped.gov.mm>)
- 미얀마기후정보(<http://www.fao.org/gIEWS/countrybrief/country.jsp?code=MMR>)
- 세계은행(WB) (<http://data.worldbank.org/country/myanmar>)
- 세계식량기구(FAO) (<http://faostat3.fao.org/compare/E>)
- 아시아개발은행(ADB) (<http://www.adb.org/publications/basic-statistics-2015>)
- 한-아세안센터(ASEANKOREA) (<http://www.aseankorea.org/kor/Resources/statistics.asp>)
-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http://keri.koreaexsim.go.kr/>)
-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http://www.kita.net/>)
- 환율변환기구 (<http://ko.exchange-rates.org/converter/USD/MMK/1>)
- CEIC (<https://www.ceicdata.com/en>)
- CIA (<https://www.cia.gov/library/publications/the-world-factbook/geos/bm.html>)
- EIU (<http://www.eiu.com/>)
- MOAI (<http://www.moai.gov.mm/>)
- Oxford Economics (<http://www.oxfordeconomics.com/>)
- UNDP (<http://www.mm.undp.org/content/myanmar/en/home/countryinfo.html>)